

농촌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우수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조사

김정은 · 류진석* · 김대식** · 정여주***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교수 ·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Analysis of User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Factors in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

Kim, Jeong-Eun · Ryu, Jin-Seok* · Kim, Dae-Sik** · Jung, Yeo-Joo***

Dep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Agricultur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woon University, Associated Professor*

ABSTRACT : Although user satisfaction and activation are noting new, factors related to user emotion have been a part of the important subject shared by most people for management. But few studies have known in culture and welfare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 The samples were collected through self-completed a questionnaires, a total of 322 users data were identified by SPSS 25.0 and frequency and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General user satisfaction of culture and welfare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 reach a total or 8.52 points(out of a total of 10 points), 2)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user satisfaction are comparative satisfaction, recognition of contribution to the local economy, age, job. A key insight from these results is that most users are satisfied with the culture and welfare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 And relationship between user satisfaction and a variety of variables indicates the essential for differentiation and utilization of servic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everal practical and political strategies taking the context and the needs of users as a way of enhancing the urban and rural welfare services.

Key words : Closed schools, Coexistence of urban-rural areas, Rural areas, User Satisfaction

I. 서 론

농촌 지역의 폐교는 아동과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의미 있는 지역생활을 위한 사회적 관계, 자원 등의 시간과 공간 차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의 노동시장이나 인구 감소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Cedering and Wihlborg, 2020; Segeman, 2022).

국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역시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커지면서 농촌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폐교활용법)」에 의하면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의미하며, 폐교재산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

Corresponding author : Ryu, Jin-Seok

Tel : +82-42-821-6475

E-mail : jsryu@cnu.ac.kr

Corresponding author : Kim, Dae-Sik

Tel : +82-42-821-5795

E-mail : drkds19@cnu.ac.kr

설과 그 밖의 공유재산을 말한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2). 폐교재산은 매각 또는 활용(대부, 자체활용), 미활용 폐교로 나뉘는데, 폐교재산 활용의 목적은 교육용,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소득증대, 귀농어·귀촌지원시설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과 복지기회 확충, 소득증진 등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2).

최근 우리나라 폐교 현황은 2018년도 3,752개소에서 2022년도에는 3,896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매각된 폐교수는 2,339개소에서 2,558개소로 증가한 반면, 대부나 자체활용의 활용 폐교는 993개소에서 987개소, 미활용 폐교는 420개소에서 351개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Local Educational financial statics information system, 2018, 2022).

그 동안 농촌 폐교재산의 활용과 가치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교육청의 폐교재산의 자체 활용 사례의 경우 체험학습장이나 수련원, 학생교육원, Wee센터 등의 교육용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매각이나 대부하는 경우는 교육용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ocal Educational financial statics information system, 2018;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6; Choi, 2020).

또한 전국에서 가장 폐교 수가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인 경남지역의 폐교 활용 시설의 입지를 마을의 거점마을(시가지), 농경지 주변, 산지지역, 바닷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인 거점마을의 시가지나 중심지에 위치한 경우가 152개교로 전체의 62.8%를 차지하였으며, 폐교 활용 유형도 교육 89개소, 소득증대 35개소, 문화 28개소, 복지 15개소, 체육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Yang, 2018). 질적연구 방법으로 살펴본 농촌 폐교재산 활용의 우수시설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농촌 폐교재산 활용의 문화복지 시설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교육과 문화 체험 중심의 복합화시설이나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Kang and Choi, 2021;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6). 경남지역 내 폐교재산 활용의 우수 문화복지시설인 남해군의 목운 조효철 서각공방, 거제시의 갤러리 지두, 김해시의 지혜의 바다, 진주시의 장애인복지센터 및 소담마을 대한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이 시설들은 지역의 부족한 문화 및 복지 인프라를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Choi, 2020).

이처럼 농촌 폐교는 학교의 본래 목적인 농촌 지역의 핵심적인 초·중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역할과 상징의 상실을 의미하지만, 폐교재산의 활용은 농촌 지역사회 주

민의 평생교육은 물론 삶의 질,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가치와 유용성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우수 시설들이 지역의 명소로 알려지고, 전국의 이용자들의 방문과 관광명소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농촌 폐교재산의 활용 가치는 농촌 복지와 농촌개발의 활성화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복지와, 도시와 농촌의 공존 차원에서도 그 유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농촌 폐교재산의 활용은 ‘학교’ 특성뿐만 아니라 ‘농촌’의 특성을 지닌 교육, 복지, 문화, 체육활동지원 등을 촉진하는 도농공존의 종합문화복지시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농촌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많은 경험이 축적된 일본의 경우 더 다양한 도농공존의 사례와 효과가 입증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농촌폐교를 현지 생산물을 활용한 식당과 카페, 지역 농특산물 판매, 간이 숙박시설 기능으로 전환하여 휴식과 취침, 식사가 가능한 복합기능의 휴게소,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이나 일본어에 미숙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학교, 음악 및 영상제작 작업공간, 영화 촬영지 또는 음악제 주최 등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만족도, 일자리 및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외지인에게 지역의 관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도시 청소년들에게 과거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서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 나타났다(Lee, 2020).

여기에 최근 코로나 19로 농촌 폐교재산 활용의 중요성과 도농공존의 인식이 더 부각되기도 하였다. 감염병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일시적인 폐쇄를 하였지만 같은 시기에 농촌 폐교재산을 문화예술체험, 캠핑장, 미술관, 숙박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한 시설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장소와 활동들이 잘 알려지면서 도시민, 가족 단위 등의 이용자 수가 코로나 19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고 폐교를 활용한 콘텐츠도 더 다양하게 확대된 사례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The Chosunilbo, 2020).

앞으로도 도농의 격차와 코로나 19의 심각한 후유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촌복지와 개발, 도농공존의 관점에서 농촌 폐교재산 활용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인식 확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의 축적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국의 우수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영향 요인 등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 전국 또는 지자체의 우수 폐교재산 활용 시설에 대한 간략한 시설소개와 현황(Choi, 2020; Lee et al., 2021;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6; Yang, 2018)에 머물러 있고, 도농공존 거점공간으로

서의 폐교 활용 방안과 활성화 요인(Koo, Bae and Kim, 2022)에 대한 탐색적 논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와 관련 영향 요인들을 조사하는데 있다. 조사 결과는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폐교재산 활용 시설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관련 영향 요인을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독립변수는 농촌 폐교재산 활용 문화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내 유사 시설과의 상대적인 비교 만족도와 지역사회 경제적인 기여에 관한 인식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구학적 요인, 지역사회 내 다른 시설과의 비교 만족도와 지역사회 경제적인 기여 인식이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우수 문화복지시설의 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들이다. 적합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유의표집을 위하여 전국의 농촌 폐교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중 경기도 평택시의 웃다리문화촌, 경상북도 김천시의 사단법인 에제르, 전라북도 정읍시의 우리누리생활문화원 3곳을 선정 후 이들 기관에 조사연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웃다리 문화촌은 2000년에 폐교된 금각초등학교를 활용해 2006년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이 각종 전시와 농악, 한지, 공예 등의 전통체험 등을 제공하는 문화재생활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우수상을 받았다.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에제르는 2013년도에 폐교된 지동초등학교를 활용하였다. 이 곳은 현재

지역사회 평생교육, 노인 및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농업체험, 농산품을 활용한 판매와 카페 운영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제1회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정읍시의 우리누리생활문화원은 1997년에 폐교된 두월초등학교를 활용한 곳이다. 이곳은 한자와 예절교육, 전통놀이, 선비문화, 서예, 국악 등의 예술체험 등 우리나라 고유의 선비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활한 연구진행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진들이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 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조사 참여에 동의한 이용자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관련 변수,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내 유사 시설과의 상대적인 비교 만족도와 지역사회 경제적인 기여에 관한 인식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는 성별(남성, 여성),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결혼(기혼, 미혼), 최종학력(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업 유무(있음, 없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의 인근 거주 여부(예,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 유사 시설과의 상대적인 비교 만족도는 “귀하의 지역사회에 위치한 다른 관련 시설과 비교했을 때 본 시설은 상대적인 만족도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1점=매우 불만족스럽다’에서 ‘5점=매우 만족스럽다’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경제적인 기여에 관한 인식은 “본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종속변수는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이며, “본 시설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라는 질문을 10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총 350명의 응답 자료가 수집되었지만, 무응답을 비롯

하여 전반적으로 응답이 부실한 28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2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t 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28명(30.2%), 여성은 194명(60.2%)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가 127명(39.4%)으로 가장 많고, 50대 56명(18.4%), 60대 34명(10.6%), 20대 20명(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272명(84.5%),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 상태가 226명(70.8%), 직업은 있다는 경우가 243명(77.5%)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문화복지시설과 인접한 경우가 214명(66.5%)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타 지역도 108명(33.5%)로 나타나서 앞에서 언급한 문화복지 시설로 전환된 농촌 폐교재산의 사회경제적인 효과성과 도농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Gender	Female	194(60.2)
	Male	128(39.8)
	Total	322(100.0)
Age	20-29	20(6.2)
	30-39	127(39.4)
	40-49	85(26.4)
	50-59	56(17.4)
	60-69	34(10.6)
	Total	322(100.0)
Marriage	Unmarried	50(15.5)
	Married	272(84.5)
	Total	322(100.0)
Education	Highschool	52(16.3)
	University	226(70.8)
	Graduation	41(12.9)
	Total	319(100.0)
Having a job	Yes	243(77.5)
	No	72(22.5)
	Total	320(100.0)
Region near the facilities	Yes	214(66.5)
	No	108(33.5)
	Total	322(100.0)

2. 주요 변수의 특성

주요 변수의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52(sd=1.33)점으로 나타나서 매우 높은 긍정적인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이용자 자신의 지역사회 내 유사한 문화복지시설과의 상대적인 비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1(sd=.85)점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편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경제 기여도 역시 평균 3.84(sd=.84)점이었는데, 이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표본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로 확인한 결과 모두 절대값 2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의 차이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종속변수인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연령, 직업 유무, 폐교재산 활용 문화복지시설 인접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main variables

(N=322)

Variables	Mean(sd)	Skewness	Kurtosis
Comparative satisfaction	3.81(.85)	-.967	1.680
Contribution to the local economy	3.84(.85)	-.463	.174
General satisfaction	8.52(1.33)	-.886	.634

Table 3. Difference analysis

(N=322)

Variables		Mean(sd)	t or F
Gender	Female	8.49(1.23)	-.533
	Male	8.57(1.46)	
Age	20-30	8.27(1.41)	-3.227**
	40-60	8.74(1.21)	
Marriage	Unmarried	8.22(1.52)	1.756
	Married	8.58(1.28)	
Education	Highschool	8.46(1.28)	1.633
	University	8.48(1.33)	
	Graduation	8.88(1.27)	
Having a job	Yes	8.62(1.33)	2.602*
	No	8.17(1.27)	
Region near the facilities	Yes	8.36(1.33)	-3.279**
	No	8.85(1.26)	

*p<.05, **p<.01

거주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는 20-30대 보다는 40-60대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에, 문화복지시설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앞선 문화복지시설과 이용자들의 거주지역 인접 여부(예=214명, 66.5%, 아니오=108명, 33.5%) 결과와 함께 인접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 높다는 결과는 조사대상지인 문화복지시설의 우수성과 함께 농촌 폐교재산 활용 가치가 농촌 지역과 도농공존에도 긍정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인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와 각 변수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직업, 문화복지시설 인근 거주 여부, 지역사회 유사시설과의 상대적인 비교 만족도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기여 인식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의 연령층이 아닌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문화복지시설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역사회 내 유사시설과의 상대적인 비교 만족감이 높을수록, 문화복지시설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

을수록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와 영향 요인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와 영향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기 전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각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 계수값이 $-.405^{**}$ 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값(VIF) 모두 1.269 이하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회귀분석의 회귀선은 전체의 26.1%를 설명하고 있으며, 분산분석 모델 검정(F값)은 15.19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직업 여부, 문화복지시설 인근 거주 여부, 상대적인 비교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인식 변수로 나타났다.

즉, 30대의 연령이 아닌 경우($B=-.299, p<.05$), 직업이 있는 경우($B=.399, p<.05$), 문화복지시설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B=-.296, p<.05$), 이용자들의 지역사회 내 유사 시설과의 상대적인 비교 만족감이 높을수록($B=.466, p<.001$), 문화복지시설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식이 긍정적일수록($B=.414, p<.001$)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N=322)

	1	2	3	4	5	6	7	8	9
1	1								
2	.201**	1							
3	.020	-.040	1						
4	.039	.165**	-.073	1					
5	-.405**	-.085	-.065	-.024	1				
6	.122*	-.005	-.050	-.075	-.034	1			
7	-.107	-.037	.056	.023	.091	-.152**	1		
8	.010	-.019	.131*	-.028	.056	-.128*	.340**	1	
9	-.030	-.126*	.098	-.046	.144**	-.177**	.411**	.395**	1

- 1=Gender(female=1, male=0)
 - 2=Age(30-39=1, etc=0)
 - 3=Marriage(married=1, unmarried=0)
 - 4=Education(university=1, etc=0)
 - 5=Having a job(yes=1, no=0)
 - 6=Region near the facilities(yes=1, no=0)
 - 7=Comparative satisfaction
 - 8=Contribution to the local economy
 - 9=General satisfaction
- * $p<.05$, ** $p<.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322)

Variables	B	β
Constant	4.962	
Gender ⁺ (female=1, etc=0)	.232	.086
Age ⁺ (30-39=1, etc=0)	-.299*	-.110*
Marriage ⁺ (married=1, etc=0)	.149	.041
Education ⁺ (university=1, etc=0)	-.093	-.032
Job ⁺ (yes=1, etc=0)	.399*	.126*
Region ⁺ (near=1, etc=0)	-.296*	-.105*
Comparative satisfaction	.466***	.297***
Contribution to the local economy	.414***	.264***
R ² (adjust R ²)	.280(.261)	
F	15.199***	

⁺dummy variable
* $p<.05$, *** $p<.001$

다음으로 농촌 폐교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상대적인 비교 만족감($\beta = .297, p < .001$),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기여 인식($\beta = .264, p < .001$), 직업 여부($\beta = .126, p < .05$), 연령($\beta = -.110, p < .05$), 문화복지시설 인근 거주 여부($\beta = -.105,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농촌 폐교재산의 농촌복지와 농촌지역사회 개발 차원에서 유용성이 크지만 도농공존의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복지시설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지역사회 유사 시설과 비교한 상대적인 만족도,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은 그 동안 간과되어 온 도농공존 거점공간으로서의 우수한 폐교재산의 역량과 가치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우수 문화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도와 영향 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의 웃다리 문화촌, 경상북도 김천의 사단법인 예제르, 전라북도 정읍시 우리누리생활문화원 3곳의 이용자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우수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52($sd = 1.33$)점으로 나타나 매우 긍정적인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우수 문화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이용자들의 연령대가 20-30대 보다는 40-60대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에, 문화복지시설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더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용자들의 연령이 30대가 아닌 경우($B = -.299, p < .05$), 직업이 있는 경우($B = .399, p < .05$), 문화복지시설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B = -.296, p < .05$), 이용자들의 지역사회 내 유사 시설과의 상대적인 비교 만족감이 높을수록($B = .466, p < .001$), 문화복지시설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B = .414, p < .001$)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 동안 농촌 폐교재산 관련 선행 연구들 대부분 단순 현황 위주의 우수사례 소개에 머물러 있는 한계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양적 연

구방법의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복지시설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들의 경우에서 전반적인 이용만족도가 높고, 이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유사시설과 비교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이용만족도가 높아진 점은 향후 농촌 폐교재산의 활성화 방안의 고려사항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농촌 지역 폐교는 사회경제적인 효율성과 효과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지만 Ticken와 Auldridge-Reveles(2020)가 지적한 바와 같이 폐교는 지리적, 인구학적 편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고, 폐교 결과나 영향 역시 취약계층이나 집단의 사회경제적인 불균형과 격차, 중요한 교육 및 지역사회 시설로의 접근 제한 등의 공간적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폐교재산 활용의 우선순위에서도 농촌 폐교가 본래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시설 활용이 도농공존 거점 공간을 위한 활성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을(Koo, Bae and Kim, 2022)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도농 간 교육과 복지 격차, 코로나 19로 인한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의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향후 농촌 폐교재산의 활성화 방안은 ‘농촌’과 ‘학교’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도농의 문화복지의 거점공간으로서의 인식 개선과 지원이 다차원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도를 비롯한 다양한 활성화 요인과 동기 등에 대한 기초 자료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서구의 경우 폐교로 인한 개인 가족 차원, 지역사회 및 국가 수준은 물론 시-공간 차원의 인과관계에 대한 다양한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의 중단적 연구들이(Cedering and Wihlborg, 2020; Segeman, 2022; Ticken and Auldridge-Reveles, 2020)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는데,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대상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각 지자체에서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우수 시설에 대한 재정 및 특성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Korean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2)과 연계하여 도시 지역의 전문경력과 활동 역량을 갖춘 은퇴노인을 대상으로 농촌 폐교재산 활용의 문화복지시설

에서 강사나 봉사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농촌 폐교재산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설립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농촌 폐교재산 활용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을 대상의 컨설팅 사업 지원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부 우수사례를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조사도구와 측정에 있어서도 비교적 단일한 문항과 응답 수준으로 조사되어, 이용자들의 문화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이용 서비스, 비용, 향후 이용 의향 등 구체적인 이용 만족도 수준과 관련 요인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모 있는 표본과 체계적인 측정도구들을 사용한 양적 및 질적연구와 종단적인 차원의 조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9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명: 사회복지제도와 농업 농촌정책 융복합을 통한 지역맞춤형 도농공존 거점공간 모델개발 연구, 과제번호: NRF-2019S1A5A2A03052335).

References

1. Cedering, M. and Wihlborg, E., 2020, Village Schools as a Hub in the Community-A Time-Geographical Analysis of the Closing of two Rural Schools in Southern Sweden, *Journal of Rural Studies*, 80, 606-617.
2. Choi, H. W., 2020, An Analysis of Current Use for the Utilization of the Closed School in Gyeongsangnam-do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8(3), 67-76.
3. Ezere Homepage, 2022. <https://ezeredu.com>.
4. Koo, H. D., Bae, S. J. and Kim, D. S., 2022, Analysis of Closed School Utilization and Association Factors as Urban-Rural Base Spa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 Rural Planning*, 28(3), 95-109.
5. Korean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2, <https://www.kordi.or.kr>.
6.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2, <https://www.law.go.kr>.
7. Lee, J. R., 2020,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the Life-Style SOC Project using School Idle Facilities-Focusing on the Use of Idle Classes and Closed Schools in Japan,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19(4), 1-14.
8. Lee, M. Y., Kang, M. K. and Choi, J. Y., 2021,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losed School through Regional Analysis-Focused on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37(3), 37-46.
9. Local Educ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2018, <https://www.eduinfor.go.kr>.
10. Local Educ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2022, <https://www.eduinfor.go.kr>.
11.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6, A Case Book on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
12. Sageman, J., 2022, School Closures and Rural Population Decline, *Rural Sociology*, 87(3), 960-992.
13. The Chosunilbo, 2020, <https://www.chosun.com>.
14. Tieken, M. C. and Auldridge-Reveles, T. R., 2019, Rethinking the School Closure Research: School Closure as Spatial Injusti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9(6), 917-953.
15. Urinuri Homepage, 2022, <https://sunbi.com>.
16. Wootdali Homepage, 2022, <https://wootdali.or.kr>.
17. Yang, K. S., 2018, A Study of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s in Geongnam Are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20(1), 53-60.

-
- Received 10 January 2023
 - Finally Revised 2 February 2023
 - Accepted 23 February 2023